

녹색생활을 위한 가족자원경영전략

조 희 금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한다(2008.8.15. 이명박대통령). 녹색성장은 환경(생태)과 경제를 함께 아우르는 대안 성장의 개념이며, 기본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되 녹색으로 표현되는 환경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즉, 녹색환경의 비용과 편익 중 전자를 최소화하는 반면 후자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녹색성장의 원리는 '경제성장의 지속성과 환경의 시장가치화'란 두 가지 명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조명래, 2009, 63-64)

그런데,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성장이 1992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에 대해 윤순진(2009)은, 200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정의의 세 차원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것인데, 현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성장은 환경보호나 사회정의의 차원보다는 경제성장에 방점이 찍히는 성장 모델이라는 것이다. 또 녹색성장은 1990년 이후 유럽에서 유행한 생태근대화론과도 차이가 있는데, 생태근대화론은 자본주의적 경제구조 안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환경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친환경적 경영을 하게 되면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만큼 환경보호나 사회적 정의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녹색성장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태근대화론이 실천 측면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음과 비교할 때, 녹색성장은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현 정부의 녹색성장은 환경을 살리고, 환경과 우리 삶을 조화롭게 가꾸려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지금까지 주로 화석연료에 의존한 발전으로 인류가 누리게 된, 경제적 풍요가 가져온 환경문제와 자원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 지구적인 과제이다. 비록, 현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성장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가진 가치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녹색생활혁명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녹색생활혁명이란 생활방식 전반이 저탄소 녹색생활로 변화하는 것, 즉 의식주와 사고, 행동 등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정은 앞으로 녹색성장을 달성할 핵심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배순영, 2009).

녹색생활혁명의 주체이며,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과, 가족의 일상생활은 가정학의 주요대상이다. 즉, 가정학은 초기부터 가족원과 그들의 삶의 터전인 집,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한 학문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가족자원관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 및 에너지를 가족원의 요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다. 자원이란 가족이 가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물, 공기, 에너지 등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사람의 능력, 시간, 화폐 등 매우 다양하다. 자원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태도 및 방법들 역시 가족자원관리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그러므로 본 발표에서는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녹색성장과 녹색성장의 주요한 분야인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가족자원관리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녹색생활의 실천 방안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하여 실천될 수 있고, 그 실천들이 모여 궁극적으로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며, 생활양식의 변화가 친 환경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방식이 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족의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리드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며, 가족자원의 관리자가 한 개별 가정의 관리를 넘어서 가정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좋은 관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녹색성장과 녹색생활

요즈음은 거의 모든 제목에 녹색이 들어간다. 특히 녹색성장, 녹색생활을 비롯해 녹색사회, 녹색소비, 녹색상품, 녹색구매, 그린홈, 녹색교통 등등. 올해 많은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주제 역시 대부분 녹색이 들어가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슨 프로젝트든지 녹색이 들어가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는다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유행처럼 쓰이고 있는 녹색에 관련된 용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이미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전세계는 지구가 가진 자원의 한계와 인류가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누린 풍요의 결과가 환경파괴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전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으며, 그 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회의와 협약,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개인, 단체, 국가의 노력들이 이어졌다. 녹색은 이때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물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당장 경제성장을 멈출 수는 없었기 때문에,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경제성장이라는 의미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정리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 녹색생활이라는 용어가 지금처럼 쓰이게 된 것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하겠다는 선언이 있는 이후의 일이다.

녹색성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있다. 2009년 2월 25일 국무총리실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2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4월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다. 다만 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성장 기획단은 대통령 훈령 제 239호에 의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내용에서 '녹색생활'과 관련된 조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안 제2조(정의)에서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제7조(국민의 책무)는 ①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국민은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녹색생활 운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에서는 제58조(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제59조(녹색생활운동의 촉진), 제60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¹⁾ 녹색생활과 관련한 과제는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혁명"이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하는 녹색생활혁명의 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녹색생활의 방향은 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등 에너지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는 구체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운동 단체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활동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린스타트 운동이 제시하는 가정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의 지혜는 대부분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내용들이다(그린스타트, www.greenstart.kr).²⁾ 그린스타트 운동이 제시하는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의 지혜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배순영(2009)은 가정에서의 녹색생활혁명을 소비생활 전반에 녹색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녹색가치나 의식을 넘어 녹색행동 및 실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녹색생활을 소비생활의 구매-사용-처분의 전 과정에 이르는 것으로 녹색구매, 녹색사용, 녹색처분으로 설명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와 실천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알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제도로 소비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 2)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탄소캐시백제도: 탄소성적표지제이란 기업에서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라벨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제도이며, 탄소캐시백 제도는 에너지 고효율, 온실가스 저배출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탄소캐시백 포인트를 부여하는

1) 녹색성장정책은 10대 핵심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교통의 구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이다(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2)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저탄소 녹색사회의 실천을 위해 16개 시·도 및 193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 속의 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실천운동으로 녹색생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이다. 이 운동은 'Green is Life', '녹색은 생활이다'는 구호를 가지고 가정, 직장, 초·중고등학교 및 캠퍼스, 유통매장, 농촌, 건설현장, 식당, 군부대, 운송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 생활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이다.

3) 탄소 마일리지제도: 주민들이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 에너지를 절약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면 그 실적에 따라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4) 실천운동은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녹색교통운동, 겨울철 내복입기 캠페인,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배출량을 계산해 주는 탄소 발자국 캠페인 등 다양한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녹색생활혁명을 이루기 위한 제도 및 운동들 역시 녹색생활혁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량 감축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과거 가정에서의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이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등에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진일보 한 것이기는 하나,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은 매우 다양한 분야의 생활에서 실천됨과 동시에, 무엇보다 현재의 대량소비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을 때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인 녹색가정, 녹색생활에 대한 생활과학적 관점을 의식주, 소비 및 가정교육의 각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녹색생활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특히 학문의 발달 초기부터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생활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연구했던 가정학(생활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녹색생활혁명은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며 생활과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실천방법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녹색생활 실천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3. 가족자원관리와 생태체계적인 관점

Vincenti & Turkki(2008)는 가정학의 대상을 가족과 가정의 일상생활로 보았는데, 가족과 가정 내의 일상생활은 의생활, 식생활, 주거 및 돌봄을 포함하며,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간행위가 가정학의 연구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특히 일상생활의 총체를 다루는 방법으로 가족자원관리와 인간생태학 이론을 중시한다. 가족자원관리는 가정학의 대상인 일상생활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핵심 학문이다. 가족자원관리는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환경과 전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즉, 체계적인 전체를 근간으로 하면서 가정과 사회, 인간행동과 환경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의 사고, 방법론 및 적용을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도우면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정학이 가지는 생태체계적인 관점을 살펴보면, 가정학(家政學)은 고대 그리스어 Oikonomia 로, 이는 인간생활의 장소인 집(oikos)과 이를 다스리는 규정, 법칙 또는 습관(nomos)을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을 의미하였다. 1902년 미국에서 확립된 가정학(home economics)에 대한 정의는 '인간과 가족, 이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이 양자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하여 가정학이 인간과 그의 일상생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구명하는 학문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초기 미국 가정학의 기초를 다진 Ellen Richards는 가정학의 명칭을 home economics 로 정하기 전인 1880년대 "올바른 삶의 과학(the science of right living)" 으로 해석되는 "oekology"를 옹호했었고, 그 후 1904년에는 '환경을 통제하는 과학(the science of controllable environment)" 을 의미하는 "euthenics"를 제창하였다. 이는 사회변화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환경을 바꾸려는 결정적인 행동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Stage, 1997, 27)생각했기 때문이다. 명칭을 바꾸려는 그녀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는 생활에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환경」(카세카와, 1991)이 중요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교과과정이나 연구에서

발전을 거듭한 가정학은 1960년대 후반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 명칭을 인간생태학(human ecology)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는데, 이로써 생태학(ecology)적 관점이 학문 명칭에도 드러나게 되었다. 이처럼 가정학은 역사를 통해 생태학적 사고에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태학(ecology)은 가정학의 어원에서 언급한 집, 거주지를 나타내는 희랍어 'oikos' 와 학문을 나타내는 'logos'의 합성어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공간으로서 인간의 최근접 환경을 의미한다. 또 'oikos'는 economy의 어원이기도 하다. 1866년 헤켈이 처음으로 소개한 생물학에서의 생태학은 동물과 무기적·유기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경제(economu of nature)에 대한 지식으로 자연지역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식물과 동물의 상호의존에 관한 과학으로 정의된다. 인간생태학(human ecology)은 이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였다(김동배 외, 2003).

인간생태학은 생태체계적인 관점(Ecosystems Approach)을 의미하는데, 이는 생태학과 일반체계 이론으로 구성되어, 인간과 환경의 관련성을 학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적인 틀이다. 가정학에서 생태체계적인 접근은 가족과 그 구성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간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물리적인 차원을 강조하며, 이것과 더불어 가족의 심리사회적 성격과 상호작용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 접근에서는 가족이 갖는 물리적 자원의 기반과 환경 내 다른 체계와의 상호작용 및 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윤종희, 1991). 인간을 둘러싼 공간적 차원에 관심을 갖고 인간 관계나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 및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와 가치를 고려하는 인간 생태체계모델, 가족생태체계 모델이 만들어 졌다. 가족생태체계 모델에서 가족은 자원관리 과정을 통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4. 건강한 녹색생활을 지향하는 가족자원경영전략

가정차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건강한 녹색생활의 실천은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이 가진 자원사용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가족자원 관리자의 몫이다. 자원은 가족체계의 내·외부로부터 가족체계로 투입되는 물질, 에너지, 정보 등이다. 가족이 가진 목표에 따라 자원에 대한 요구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자원을 어디서 구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는 자원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가족이 가진 욕구나 목표에 달려있다. 가족이 가진 욕구나 목표는 가족의 가치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존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족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따라 자원관리 방식도 달라진다.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 경제적인 부와 비례하지 않는 예를 풍요로운 선진국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지 않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 이정진(2009)은 행복을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분명하게 제시한다. 즉 행복=소비/욕망으로 소비에 비례하고 욕망에 반비례하므로 소비를 많이 할수록 행복하나, 욕망이 클수록 행복감은 감소한다. 특히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자원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는 그동안 끝없이 부풀려지기만 했던 인간 욕망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너무 많은 자연자원을 소모하고 너무 많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소비를 모두 줄이는 것은 행복감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파괴적인 소비, 과시적인 소비, 금방 싫증을 느끼는 적응적인 소비를 줄이라고 충고한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가진 과도한 욕심 즉 탐욕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원사용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녹색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혹은 우리 미래세대가 겪어야 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다. 그동안 서양의 근대적 합리성이 가져온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생태학적 합리성'을 제시하는 박이문(1997,9-10)은 생태적 합리성은 희랍어 오이코스(oikos)에 암시되어 있는 상호연관된 몇 개의 의미를 동시에 뜻하는 것으로, 무엇을 '생태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오이코스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들에 비추어, 다시 말하여 집이나 거처나 서식지나 보금자리와 같은 말에서 연상된 특성에 비추어 그것을 본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그는 오이코스의 의미가 갖는 이러한 특징들은 네 개의 관점-계보학적, 형식적, 가치론적, 생태중심적 관점에서 묘사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집, 거처, 보금자리는 첫째 계보학적으로 볼 때 대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들은 반드시 대지를 재료로 하여 대지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그것들은 특정한 지리적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가장 적합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볼 때 획일적이지 않다. 셋째, 가치론적으로 볼 때 그것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자의 삶을 확장 시키고, 가능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생태학적 존속보다 더 의미있거나 가치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은 인간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생태중심적 관점에 열려있다는 것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생활이란 생태학적인 관점을 고려한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양식은 가치관의 변화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지금까지 더 많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큰 것에 대해 가치를 두던 것에서 더 적게, 더 느리게, 그리고 더 작은 것을 선택하는 생활양식이 생태학적인 자원관리라 할 수 있다. 돌봄을 더 많이 생각하고, 비용-편익의 계산을 더 적게 하는 삶의 양식을 말한다. 즉, 우리의 대상이 되는 일상생활행동은 인간이 생활을 유지하고 인성개발의 가능성을 창출하며 공동생활의 문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치를 필요로 하고, 가치를 소비하는 행동으로 무한한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행동이 아니다. 녹색생활을 위한 자원관리 행동은 가정에서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의 유지와 보호를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다음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가족자원경영전략을 생태학적 합리성에서 제시한 'oikos'의 특성에 근거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녹색생활을 위한 가족의 자원관리는 각자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인 지역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녹색식생활의 지표 중 하나는 푸드마일리지와 음식물쓰레기의 양인데, 이는 각 가정에 따라 다르고 국가에 따라서도 다르다. 푸드마일리지 가 길수록 탄소배출량은 증가한다(이영은, 2009). 이런 의미에서 '신토불이', 로컬푸드 운동은 녹색생활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가족이 식사를 위한 식품을 선택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철에 생산된 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수송에 들어가는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지역성의 고려는 동시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근접환경은 가족원이 일하고, 활동하며, 휴식하는 공간, 즉 이웃과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성이 회복되면, 우리는 이웃과 함께 자원을 공유하고, 나누어 쓰고,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쓸 수 있다. 가족 간에 품앗이가 가능하여 노동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웃 간 공동 작업을 통해 자원사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여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녹색생활을 위한 가족의 자원관리는 생물학적, 사회적인 삶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생태체계의 건강성은 생물학적인 종의 다양성에 달려있다. 생태계에서 어떤 생물체도 그 육체적인 생김새, 생물학적인 욕구, 시공간적 위치에서 정확히 똑같은 것은 없다. 모든 생물체가 다른 생물체에게 자신을 관계시키는 합당한 방법은 오로지 그것이 각각의 특정한, 독특한 문맥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할 때 가능하다. 즉 획일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이문, 1997, 14). 개별가정은 그 가정

의 가족구성, 사회경제적인 지위, 가족원이 가진 욕구나 목표, 연령 및 가정생활주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종류 등에서 각각 다양하다. 최근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증가는 개별가정이 가진 역사와 문화 또한 다양하게 만들었다. 다양성은 풍부함과 건강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우리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며, 사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양과 종류 및 관리방법을 훨씬 풍부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고려한 자원관리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자원을 사용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생태학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 과도한 자원사용 결과 나타나는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는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생태계의 파괴는 자연의 죽음과 함께 인류 자체의 존속도 위협할 수 있다. 즉, 지속가능성은 생명의 유지와 존속을 의미하며 생명의 유지와 존속이 가능한 경제적인 발전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자원사용은 현재적인 필요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원사용에 대한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은 미래세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는 가정이 가지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므로(진미정, 2009), 자녀양육과 돌봄을 위한 지원은 생태학적인 자원관리의 우선적인 관심 대상이다. 이는 개별가정의 자원사용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자원사용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가진다.

넷째, 녹색생활을 위한 가족자원의 관리는 인간중심적인 것에서 생태중심적인 열린 관점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생태문제가 사회문제로부터 야기 되었다고 보는 북친(1997, 252-276)은 그의 사회생태론에서, 현대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 이로 인한 자연파괴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라는 사회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남성에 의한 남성의 지배는 궁극적으로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에 근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현생태위기의 근원을 소비주의에서 찾는다면, 사회생태론은 현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의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생산과정의 최종단계로서의 상품의 소비만이 아니라, 생산사이클의 전 영역으로 확장해야 하며, 자연에 대한 인간행위가 가해지는 생산과정(노동과정)까지도 소비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소비주의에 대한 통제는 최종생산물의 통제와 자연폐기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 생산품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단위 생산물 당 투입 원료 양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다. 이런 소비개념으로 보면 생산과정은 곧 자연원료를 소비하는 기술 선택 및 작용과정이다. 소비가 가지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의미는 소비를 생산의 종속변인이면서 동시에 생산을 유도하는 종속변인으로 보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허경옥, 2009, 130-131). 허경옥(2009)은 녹색소비생활이 생산의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인 자원추출량, 생산량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유통환경도 변화시켜 녹색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녹색생산은 최종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이 녹색제품과 용역을 구매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으로 전환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는 그래서 자원의 고갈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중심적인 자원관리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가족이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자원의 소비 전 과정에 걸친 의사결정에 생태중심적인 관점을 가짐으로써 인간중심적인

자원사용의 가치관을 생태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족은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5. 나오는 말

녹색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런 지침들은 구체적인 반면 단편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이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생활양식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녹색성장정책의 10대 과제 중 '생활의 녹색혁명'은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혁명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 속의 녹색혁명은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혁명만으로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생활양식 전체를 생태적으로 바꾸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녹색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자원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즉 자원사용의 패러다임을 생태학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자원의 사용과 관리는 가치관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가 수반될 때, 지속적이고 생활의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배 · 이희연(2003). 사회복지실천의 생태체계 패러다임과 연구방법론에 관한 고찰(1). 연세사회복지연구. vol.9 27-58.
- 머레이 북친 지음. 문순홍 옮김(1997). 사회생태론의 철학. 도서출판 솔
- 박이문(1997). 생태학적 합리성과 아시아 철학. 녹색평론 통권 제36호. 2-26.
- 배순영(2009). 녹색생활혁명과 가정. 제3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 윤순진(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제. ECO 13-1, 219-266.
- 윤종희(1991). 가족학 연구와 가족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족학연구회편, 가족학연구의 이론과 접근. 서울: 교문사. 197-226
- 이정전(2009). 녹색성장과 녹색소비. 2009년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20
- 조명래(2009). 녹색성장과 녹색사회 구현. 국토연구원, 「국토」. 2009-1, 62-70.
- 진미정(2009).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족: 취약성과 가능성. (사)가건모. 제2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1-31.
- 허경옥(2009). 녹색소비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2009년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27-140
- Stage, Sarah(1997). Ellen Richards and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 Home Economics Movement. Stage, S & Vincenti, V.B. eds.(1997). Rethinking Home Econom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Vinenti, V. & Turkki, K.(2008). Celebrating the Past: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History of IFHE and Home Economics Profession. IFHE XXI World Congress Proceedings.
- 加勢川 たかし(1991). 家政學とエコロジー. 日本家政學會編. 「生活環境論」. 朝倉書店



부록 1. 녹색성장 국가전략 10대 정책방향 중 생활의 녹색혁명

01. 녹색성장교육 및 녹색시민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 녹색성장 개념정립 및 녹색시민 양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性·직업군·연령·지역별로 차별화된 교육자료 개발, 보급
- 녹색생활 자가진단 인식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스템화
- 제도·비제도권 교육 내에서의 녹색성장교육 강화

02.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 녹색생활 지표(Green Life Style Index) 개발 및 모니터링
- 범국가적인 대국민 통합 캠페인의 브랜드화 및 중장기 통합 홍보 캠페인 전개
- 기업의 사회적 마케팅(Social Marketing) 지원사업 추진 및 녹색 마케팅 상담 지원창구 마련
- 각 분야별 저명인사를 활용, PI(Personal Identity) 유도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강화 등 녹색생활 캠페인 전개
- 녹색생활 우수실천집단(학교, 기업, 단체 등)에 대한 포상
- 기후적응형 복장운동,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캠페인 추진
- 탄소포인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여 '20년까지 총인구 및 가구의 약 10%를 녹색시민 및 녹색가정으로 육성
 - ※ 녹색시민 : ('09)50 → ('13)100만명
 - ※ 녹색가구 : ('09)16 → ('13)30만가구

03. 녹색소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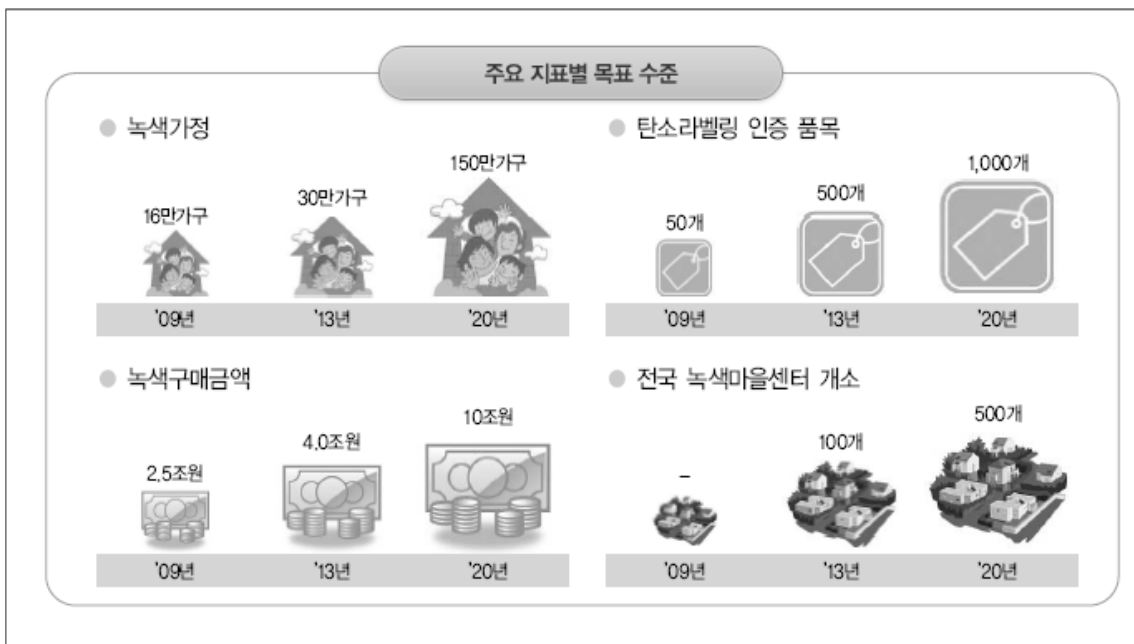
- 공공부문 저탄소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품목 확대
-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이외에도 지자체 출연 의료법인 등도 확대 포함
 - ※ 녹색구매금액 : ('09)2.5 → ('13)4.0조원
- 탄소라벨링 인증 제품 및 녹색구매 협약기업 확대
- 녹색구매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수범사례 전파
 - ※ 탄소라벨링 인증 품목 : ('09)50 → ('13)500개
 - ※ 녹색구매 협약기업 : ('09)102 → ('13)170개
- 그린스토어 인증제 도입 및 전국규모 그린유통망 확충
- 현행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의무제에 따른 친환경 상품 매장을 '그린스토어 인증제'로 개편 운영
 - ※ 그린유통 매장 : ('09)387 → ('13)600개

04.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전개


- 생활단위의 저탄소 녹색마을 모델 개발 및 보급
 - ※ '녹색마을' : 마을단위의 공간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기초생활권 중심의 공간적, 실천적 단위
- 전국 지자체 거점별 녹색마을센터 확충
- 마을단위의 녹색생활 전략수립 및 실천의 총거점이 될 녹색마을센터 설립·확충
 - ※ 전국 녹색마을센터 개소 : ('09) - → ('13)100개소
- 지역주민, 관, 기업 등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상향식(Bottom-Up) 녹색마을 운동 전개

05. 생태관광활성화

- 한국을 대표하는 자원유형별 10대 생태관광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인프라, 소프트웨어, 홍보 등 총체적 지원 실시
- 친환경적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 문화생태탐방로, 산림문화체험 숲길, 치유의 숲 등 조성 확대
- 체류형 저탄소 생태관광상품 개발
- 슬로시티,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상품 개발
- ※ 국내·외 관광객의 5%를 생태관광객으로 전환
-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속가능 관광인증제도 시행




자료출처: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eengrowth.go.kr/>)

 부록 2. 가정의 녹색생활지혜

녹색생활의 지혜 가운데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녹색생활 지침은 다음과 같다.

녹색습관 집에서부터 시작해요



1. 여름엔 26℃ 이상, 겨울엔 20℃ 이하로 유지합니다.
 - ✎ 냉난방 온도를 1℃ 조정할 경우 연간 110kg CO2를 줄일 수 있으며,
 - ✎ 냉난방 비용을 34,000원 줄일 수 있습니다.
 - ✎ 계절에 맞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2.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합니다.
 - ✎ 백열등(60W)을 형광등(24W)으로 교체 시 연간 17kg의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절전형 형광등은 백열등과 비교해 수명이 약 8배 길며, 전력소비가 적습니다.
3.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 둡니다.
 - ✎ 대기전력은 에너지 사용 기기 전체 이용 전력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 ✎ 멀티탭은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손쉽게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걷기 } 자전거 타기 }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합니다.
 - ✎ 승용차 이용을 일주일에 하루만 줄여도 연간 445kg의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장바구니를 애용합니다.
 - ✎ 1회용 비닐봉지(연간 160억개)가 분해되는 데 100년 이상 걸립니다.
 - ✎ 가정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만 하여도 연간 188kg의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친환경 상품을 구매합니다.
 - ✎ 친환경 상품 사용으로 가구당 연간 350kg의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환경마크 제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합니다.
7. 샤워 시간은 줄이고, 빨래는 모아서 합니다.
 - ✎ 샤워 시간을 1분 줄이면 가구당 연간 4,3kg의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빨래를 모아서 하면 가구당 연간 14kg의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설거지통을 이용(10분) 하면 약 80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8. 음식은 적다고 느낄 만큼만 조리합니다.
 - ✎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15조원이 넘습니다.
 - ✎ 몸에도 좋고 온실가스도 덜 발생시키는 제철 식품, 지역 농산물을 먹습니다.

자료출처: 그린스타트 홈페이지(<http://www.greenstart.kr/>)

녹색생활을 위한 가족자원경영전략

송혜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현재 '녹색 성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함께, 이를 경제 발전과 연계시키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녹색 성장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전사회적 영역으로 확산되는 시점이다. 오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에서 '녹색 성장과 가족자원경영'을 주제로 다양한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사례를 통해 학문적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앞으로 연구의 주제와 방향 설정 및 적용가능성 모색에 있어 또 하나의 도전과 계기가 주어졌다는 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회는 가족자원경영학의 실천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녹색생활을 위한 가족자원경영전략'을 모색한 주제발표는 녹색 성장에 있어 가족자원경영학의 역할을 정리하고, 특히 '생태학적 합리성'을 생활에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가족자원경영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발표자는 현재의 녹색 성장 기조가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정의의 세 차원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환경보호나 사회정의의 차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경제성장을 보다 강조하는 성장 모델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로써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의 한계, 즉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에 관심을 두으로써 환경 보호가 하나의 수단으로 과소평가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 자체에 대한 관심, 환경과 생활의 조화와 균형 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가족자원경영학이 녹색 성장 관련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상생활과 생활양식 그리고 생활문화 등을 보다 부각시켜야 한다는 과제의 제시이기도 하다.

특히 발표자가 강조한 바와 같이, 그동안 가족자원경영학이 토대해 온 주된 접근법인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환경'을 고려해 왔으며 이로써 가족자원경영학은 '진정한 녹색 성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확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나아가 발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과, 가족의 일상생활이 가정학의 주요대상이었다는 점, 그리고 날마다의 가족자원관리가 축적되어 생활양식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자원관리 즉 자원의 획득과 창출, 사용에 대한 결정이 가족의 욕구나 목표에 달려 있으며, 가족이 가진 욕구나 목표는 가족의 가치로부터 나온다는 점, 따라서 날마다의 삶이 물리적·심리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이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자원관리방식, 이에 영향 미치는 가치,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과 실천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녹색 성장과 가족자원관리의 직접적인 연계

요소를 파악하고 있다. 발표자는, 녹색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혹은 우리 미래세대가 겪어야 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더 적게·더 느리게·더 작은 것을 선택하는 생활양식 즉 '생태학적 합리성'을 생태학적인 자원관리와 연계시키고 있다. 이로써 가족자원경영학 자체가 생태학적 합리성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이를 통해 일상적인 삶에서의 실천전략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논의를 정리하면서, 오늘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된 가족자원경영학의 역할, 향후 과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이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가족자원경영학에서 녹색 성장 혹은 녹색 관점을 활성화시킬 때, 두 가지 방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래 가족자원경영학은 광의의 가정관리학과 분리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가족자원경영학이 갖는 통합성에 기인한다. 그런데 광의의 가정관리학이 가족·소비자·아동·주거 등의 하위학문분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가족자원경영학이 갖는 특성, 즉 바로 이러한 통합성 때문에 소비자와 아동, 가족 혹은 주거와 같이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가시화시킬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기도 한다. 이는 동시에 '관리'라는 연구영역이 갖는 '과정'으로서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자원경영학 연구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양식이나 가정철학, 관리유형 등의 연구와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대상을 모색해 왔는데, 가족자원관리의 주체로서 주부, 응용분야로서 공공가정경영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인적·물적 자원, 예컨대 시간, 재무 등의 관리전략, 생활설계상담 이나 가사노동 연구 등으로 구체화시키는 노력도 있어 왔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주부나 가사노동에 대한 관심은 여성문제, 여성노동, 일-가정 양립 정책 등에 대한 연구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또한 공공가정에 대한 관심은 비영리기관 운영관리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목표지향적인 기획관리,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네트워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건강가정사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연계되어 가족자원경영학의 유용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시간 관리나 재무관리, 생활설계와 같은 주제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실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가족자원경영학이 갖는 특성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한 가족자원경영학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한 편으로는 추상적이고도 본질적인 연구주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이미 분화된 우리의 학문풍토 속에서, 통합적인 가정생활의 양식과 문화, 이에 영향 미치는 가치와 목표, 관리과정 등을 다룰 수 있는 분야는 가족자원경영학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가족자원경영학마저 이러한 연구주제를 포기한다면, 가정학이나 가정관리학은 통합된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그동안 우려한 바, 전문화와 분화로 인해 다른 학문분야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점,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위상 정립의 문제 등¹⁾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다른 학문분야를 통합·연계시킬 수 있는 핵심 학문으로서의 상징성을 유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통합적 가정정책을 고려할 때,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가족자원경영학의 관점 자체가 결정적인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독립된 학문분야로서의 위상 정립, 사회적 기여도의 가시화,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실천성 강화 등 당면한 요구를 고려할 때, 연구주제와 대상을 가시화시키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처럼 두 가지 방향의 연구가 모두 필요하다는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녹색 성장 이라는

1) 송혜림(2007). 생활과학의 발전전략. 2007년도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이슈를 전개시킬 때에도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상술한 바와 같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의 가족자원관리과정에서 녹색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개념들, 예컨대 생활양식과 생활문화, 생태학적 가치관, 환경 그 자체에 대한 관심 등, 소위 '녹색 관점'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를 구체적인 가족자원관리과정에서 풀어낼 수 있는 전략들, 예컨대 쓰레기 배출, 물 사용, 에너지 사용, 탄소 배출, 식습관, 교통수단 선택 등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적 태도와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첫 번째로 제시한 '녹색 관점'에 대한 가족자원경영학의 연구는, 발표자도 제시한 바와 같이, 원래 가정경영의 철학과 생태적 가치관을 연계시킴으로써 가능하다. 특히 발표자가 소개한 '생태학적 합리성'은 독일의 가정학자 슈바이처교수(1991)가 제시한 '가정경영의 합리성'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정경영의 합리성은, 지금까지 사회를 이끌어온 경제적 인간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제적 인간형은 REMM(resourceful, evaluating, maximizing man)으로 특성화된다. 즉, 물질주의적 성향에 기초하여 자연을 정복하며, 이 땅의 모든 자원을 동원, 개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로 무한한 진보와 성장을 달성하는 인간형이다²⁾. 따라서 경제적 인간형이 지금까지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의 주역이었다면, 그러나 그 결과 환경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가 위협받는 현실이라면, 또한 그래서 녹색의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이제 우리 사회를 책임질 인간형은 파괴보다는 보호와 유지 그리고 예방에도 관심을 갖는 인간형, 성취 뿐 아니라 돌봄과 보살핌도 책임지는 인간형, 경쟁과 성과에만 주력하는 경제(economy)에 협력과 상생, 연대의 개념을 통합시킨 위코노미(weconomy)³⁾의 주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발표자가 제시한 바, '더 적게, 더 느리게, 더 작은 것을 선택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생태학적 합리성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가정경영의 합리성 혹은 생태학적 합리성의 요소들을 개발하고, 이를 그동안 가족자원경영학에서 연구해 온 주제, 즉 생활양식과 생활문화, 가정철학, 가정경영 등에 접목시켜, '가족자원경영에서 접근한 녹색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녹색 성장은 생활 속에서, 생활로부터 구동되고 연동되며, 그래서 녹색생활혁명이라 부를 수 있고, 따라서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가정학 그리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가족자원관리를 연구하는 가족자원경영학의 역할과 기여는 이러한 과정에서 가시화될 것이다.

두 번째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가족자원관리 전략을 연구하여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미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온 주제이기도 하다. 가족의 자원관리행동 조사 분석 그리고 진단과 개선의 계획, 에너지 절약 행동 연구,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약을 위한 지침 개발, 친환경적 구매행동, 식습관이나 교통수단 선택의 변화를 통한 가계비 절약 등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미시적인 개별가정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나바다 운동의 일상화, 지역사회 품앗이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체문화 형성,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등과 같은 주제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위 첫 번째 제안에서 강조한 보다 상위의 개념들, 즉 생활양식이나 가정경영철학 등과 맞닿게 되며, 이로써 추상적 연구와 구체적 연구의 연계 및 소통이 강화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자원경영학의 녹색 관점 연구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가족자원경영학의 '통합성'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녹색 성장이나 녹색 관점을 추구하는 다른 학문분야와의 연계를 위한 역할 모색이 중요하다. 예컨대 주거학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2) M.Weber, 1972 - v.Schweitzer, 1991 재인용.

3) '우리(We)' 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파편화된 개인이 아니라 협력, 참여, 공생하는 '우리'가 주인공인 자본주의를 뜻한다. 이는 전통적 자본주의가 무시하는 약자의 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를 '우리'의 힘으로 구현하고자 한다.(www.naver.com - 용어사전).

그린 홈은, 단지 친환경적 주거와 환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린 홈 컨설팅 혹은 그린 홈을 위한 생활설계와 같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야 그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린 홈의 내용과 구조는 주거학 분야에서 제공하되, 이를 컨설팅이나 생활설계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때에는, 체계적 접근법에 의한 조사 → 분석 → 진단 → 개선계획 → 실행 등의 과정에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과정에 가족자원경영학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녹색 성장을 위해 필요한 푸드 마일리지, 식습관의 변화, 친환경적 의류소재 선택 등은 각각 식생활, 의생활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가족자원관리의 주체가 수행하는 정보 탐색, 의사소통과 의사 결정, 구매 결정, 환류를 통한 개선의 방안 마련 등의 관리과정이 개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녹색성장전략을 제시함에 있어, 생활과학의 다른 학문분야와 공조·통합하면서 결과물들의 유용성을 강화시키고 이로써 실천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가족자원경영학의 통합적 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학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사례들은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추상적 주제와 구체적 주제를 동시에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다른 학문분야는 녹색 성장과 관련하여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가족자원경영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녹색성장에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들을 정리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데까지 우리의 관심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